



홈플러스 반사이익
이마트·롯데마트 등
매출 '쑹'
니



Life

고성장 올리브영
신흥강자 에이피알
뷰티시장 재편
L2



자연 품은 조형작품 예술 담긴 녹지공간 '신비의 숲'에서 힐링



아파트의 미학(美學) 래미안라그란데

강북 최초 3069세대 규모 대단지
청량함으로 반기는 '사운즈포레스트'
주민 감수성 자극하는 '아쿠아갤러리'

대지 모티브로 원석 표현한 조각상
돌, 물, 식물로 표현한 생태연못 등
단지 곳곳 예술 감상하며 휴식 즐겨

최근 찾아가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단지의 입구를 명랑하게 알려주는 벽천 '사운즈포레스트'가 입주민을 반긴다. 소나무숲 아래에서 들려오는 청량한 물소리는 깊은 숲 속 계곡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선사한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 한국의 국어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이문초, 청량초, 경희중·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다. 이문4구역이 완공되면 신설 초등학교가 구역 내에 생길 예정이다.

래미안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동, 총 3069세대 규모다. 강북 최초 3000세대 이상의 래미안 단지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2㎡ ▲55㎡ ▲59㎡ ▲74㎡ ▲84㎡ ▲99㎡ ▲114㎡로 구성됐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한다. 산책로, 조각상, 벽천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단지에 들어서면 천장산의 지류를 재해석하고 형상화한 커뮤니티 광장이 보인다. 지형을 닮은 파빌리온 티하우스와 단차를 따라 떨어지는 물결을 형상화한 수경시설로 공간이 구성됐다.

단지의 틈새 녹지를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정원 '아쿠아갤러리'도 눈에 띈다.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길목에서 자연으로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새로운 식물과 재료를 경험하며 일상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아쿠아갤러리 내에는 '레이어드 포 가든'도 조성돼 있다. 김단비 정원작가의 작품으로 사람만을 위한 정원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간이다. 빈 공간을 가진 정원은 사람에게 쉼터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다생명체들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조각상 '포레스트 오브 드림즈'는 자연과 생명이 내재하고 있는 응축된 힘을 표현하고 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대지를 모티브로 아름다움의 신비를 내보하는 원석을 형상했다.

현실 속에서 마치 꿈을 꾸듯이 빛나는 보석의 결정으로 이뤄진 신비의 숲을 걸어 다니며 가치 있는 휴식을 느끼도록 연출해 감상자들로 하여금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한다.

거대한 바위로 만든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또 다른 조각상 '래빗'이 보인다. 2차원의 그림판에 그려지는 드로잉을 3차원의 공간 속에 재현한 작품이다. 밝고 경쾌한 색상의 리드미컬한 드로잉 형식의 작품은 공간에 활기를 부여한다.

경계와 기로를 상징하는 공간 '공유원'은 가장 편안한 집과 야생적인 자연의 경계에 위치한 정원이다. 시기와 상황 그리고 환경이 제각기 다른 입주민들이 채움이 아닌 비움 속에서 머물 수 있다.

돌, 물, 식물을 재료로 깊은 자연을 표현한 생태연못 '워터프롬나드'에선 가볍게 걸거나 앉아서 현무암의 색과 질감, 물의 소리와 반짝임, 식물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에게 퀄리티 높은 놀이시설을 제공해 여느 테마파크 못지 않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양이와 털실, 치즈, 플루트 등 다양한 컨셉트로 공간을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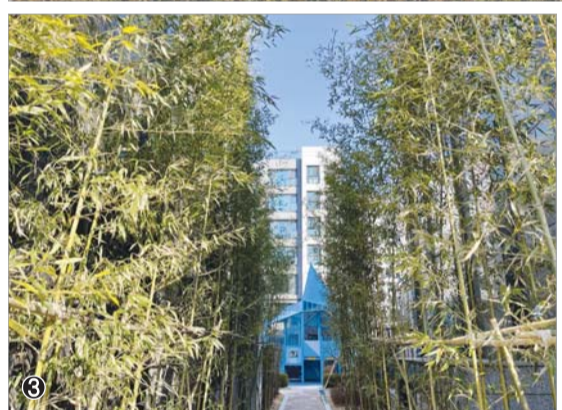
자연을 담은 단지답게 곳곳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다. 그 중 이 소나무 삼형제는 지리산에서 왔다. 오랜 시간 지리산의 비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자라온 삼형제는 새로운 터전을 잡은 주민들에게 끈끈한 유대와 희망을 전달한다. 더불어 자연과의 연결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1



2



3



4



5

1 '래미안라그란데' 단지 내 벽천. 2 '사운즈포레스트'. 3 대나무로 이루어진 단지 내 산책로. 4 커뮤니티 광장. 5 '아쿠아갤러리' 내 '레이어드 포 가든'.

메트로 한줄뉴스



▲전국 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22~26일 강원도 횡성서 개최
▲NBA 레이커스, 르브론 없이 덴버 격파...둔치 치 31점 맹활약 /사진 뉴시스

▲올해는 류현진·김광현 없다...8년만 전구단 개막 선발투수 모두 외인
▲SSG 최정, 개막 앞두고 부상 비보...우측 햄스트링 손상 진단

▲박수근 화백 지인에 보낸 연하장, 63년만에 귀향
▲'시범경기 타율 1위' 눈도장 짝은 오명진...올해 두산 히트상품 될까